

## 6. 덧붙임: 안 마태 신부의 속기 자판과 관련하여

안 마태 신부의 속기 자판과 관련한 이 부분은 위의 글과는 독립적으로 따로 덧붙인 글이다. 그 전에도 몇 번 만난 적이 있지만, 2012.12. 월에 안 마태 신부를 또 한 번 만났다. 그리고 안 마태 자판을 두 개 선물로 받았다. 시간이 나면 안 마태 신부 자판을 써 보고, 관련 자료도 본 뒤 좀 자세히 분석하고 길게 글을 써보고 싶지만 시간이 나지 않아서 그렇게 하지 못 하여 안타깝다.

그럼에도 조금은 남겨 두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이번에 한글 이야기 셋째 보따리 책을 내면서 여기에 짚막하게 글을 덧붙인다.

### 6.1 세종 89 자판과 공 병우 박사

- 컴퓨터 속기를 위한 세종 89 자판은 1989 년에 미국 노스 다코타 (North Dakota) 주 파고(Fargo)에 있을 때 처음으로 개발하여 공 병우 박사에게 알려드렸다. 공 병우 박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발명이었기 때문에 자판에 관심이 많은 공 박사에게 기쁜 마음으로 먼저 알려드렸다.

공 병우 박사에게 굉장히 중요한 발명이라는 것은, 세종 89 자판 방식으로 한글 타자 속도를 엄청나게 높일 수 있는데,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세벌식 자판을 써야만 한다는 점 때문이다. 따라서 공 박사가 개발한 세벌식의 중요성을 또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.

그런데 공 박사는 컴퓨터를 잘 알지 못 하여, 여러 글쇠를 한꺼번에 치면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글자마디 하나로 모아줄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 하였다. 몇 번이나 문서로 보여드리고, 전화로도 설명드렸지만 이해하지 못 하겠다고 하여 공 박사에게 설명하는 것을 단념하였다. 결국 공 박사는 돌아가실 때까지 세종 89 자판을 이해하지 못 하였다. 안타까운 일이다. 워낙 기계식과 전동식 타자기 시대에 연구하셨던 분이래, 컴퓨터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해하지 못 하기 때문에, 일반인을 위한 컴퓨터 속기를 이해하지 못 했다.

## 6.2 세종 89 자판 개발은 크게 두 가지 뜻이 있다

글쓰기가 1989 년에 처음으로 개발한 세종 89 자판은 크게 두 가지 뜻이 있다

1) 일반인들이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고도 혼자 스스로 훈련을 조금 하면 글쓰기가 제안한 일반인을 위한 한글 컴퓨터 속기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.

- 참고로 전문가를 위한 컴퓨터 속기는 보통 적어도 몇 년 훈련을 받아야 한다.

- 여기서 잘 알아둘 것은, 글쓰기는 세종 89를 위하여 자판을 새로 개발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. 이미 있는 세벌식 자판이라면 글자 배열이 어떠한든 세종 89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, 세벌식 자판에서 일반인을 위한 컴퓨터 속기를 할 수 있는(자판을 칠 수 있는) 방법을 연구 개발할 것이다.

2) 일반인들이 쓰는 보통의 세벌식 자판으로 - 세벌식이기만 하면 글자 배열이 어떠한든 - 컴퓨터 속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힌 점이다. 다시 말하여 보통의 컴퓨터 속기는 속기 전용 자판이 따로 있지만, 글쓰기가 제안한 세종 89는, 세벌식 자판이라면 글자 배열이 어떠한든 컴퓨터 속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. 구체적인 자판을 제안한 게 아니고, 세벌식 자판에서 어떻게 치면 컴퓨터 속기를 할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.

- 처음 세종 89 자판을 연구 개발한 때인 1989년에는 그 때의 세벌식 자판을 바탕으로 컴퓨터 속기를 개발했으며, 그 뒤 390 세벌식 자판이 널리 쓰이게 되었는데 390 자판을 써서 컴퓨터 속기를 할 수도 있다. 세벌식이면 어느 자판이든 일반인이 컴퓨터 속기를 할 수 있다.

- 일반적인 보급을 위하여 널리 쓰이는 세벌식 자판을 보기로 들었을 뿐, 글자 배열은 어떻게 하더라도 세벌식이기만 하면 어떤 배열의 자판이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.

- 세벌식 자판은 정말 수십 가지가 넘을 것이다. 공 박사가 자판 개선 욕심이 많아서 수시로 발표하였다. 글쓰기가 기억하기로 자판에 이름을 딱히 붙이지 않았기 때문에 세벌식 자판이 몇 개나 되는지도 잘 알 수 없을 정도이다. 390 이니 최종 자판이나 하는 것은 사용자들이 널리 쓰이는 세벌식 자판을 구별하기 위하여 붙인 것이고, 이름이 제대로 붙지 않은 세벌식 자판도 많다.

### 6.3 안 마태 신부 자판

- 그런 점에서 안 마태 소리 글판(자판)도 개념상으로는 세종 89의 개념을 바탕으로 세벌식 자판에서 글자의 배열만 바꾼 것이라고 볼 수 있다. 다시 말하여, 세벌식으로 일반인이 속기를 할 수 있다는 개념은 이미 글쓴이에 의해 1989 년에 연구 개발되었고, 1995 년에 발표한 글쓴이의 논문[김 경석 95 다]에 나와 있던 개념이라는 것이다.

- 그런데, 보기를 들어, "ㄷ" 글쇠가 없다. "ㄷ"을 치려면 "ㄴ" 글쇠와 "ㅇ" 글쇠를 한꺼번에 눌러야 하는데, 일반인들에게는 낯선 방식이다. ㄷ뿐만 아니라, ㅋ, ㅌ, ㅍ, 그리고 ㄱ, ㅊ, ㅍ, ㅈ도 마찬가지이다. 따라서 안 마태 자판은 속기 자판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.

ㄷ <= ㄴ+ㅇ, ㅋ <= ㄱ+ㅇ, ㅌ <= ㄷ+ㅇ, ㅍ <= ㅍ+ㅇ  
ㄱ <= ㄱ+ㅇ, ㅊ <= ㄷ+ㅇ, ㅍ <= ㅍ+ㅇ, ㅈ <= ㄱ+ㅇ

### 6.4 전문 속기사 수준까지?

- 공 병우 박사가 개발하여 발표한 여러 가지 세벌식 자판은 수동 타자기, 전동 타자기, 컴퓨터 등에서 글자를 한 타씩 치는 방식이기 때문에, 그런 세벌식 자판에 세종 89 개념을 적용했을 때 타자 속도가 아주 좋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. 본인의 연구 핵심은 "세벌식 자판이면 어떤 배열을 하든지, 일반인들이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않고 혼자 연습하기만 하면 일정 수준까지는 (전문 속기사의 수준까지는 안 되겠지만) 속기를 할 수 있다"는 점이다.

- 전문 속기사의 수준까지 올라가려면 결국 많은 약자(보기: "그러므로"는 어떻게 나타내고, "그러나"는 어떻게 나타내고, ...)를 정의하여 써야 하고, 또한 나중에 프로그램이 가다듬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, 이런 기능은 그 전에 이미 나왔던 전문가를 위한 컴퓨터 속기에서와 별로 다를 바가 없다고 본다. 안 마태 신부 자판은 이런 점에 관심을 많이 두고 타자 속도를 올리기 위하여 많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.

- 보통의 세벌식 자판을 써서도 좀 더 빨리 글자를 치는 방법, 긴 낱말을 약자로 줄여서 치는 방법, 나중에 프로그램이 가다듬는 과정 등을 보완하면 전문 속기사 수준까지도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. 그렇지만 거의 모든 보통 사람들은 전문 속기사 수준까지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.

## 6.5 세종 89 개념에 따라 여러 가지 글자 배열의 자판이 가능하다

- 따라서 글쓴이가 1995 년에 발표한 논문을 제대로 이해한 자판 전문가라면 누구라도 세벌식 자판으로 일반인이 컴퓨터 속기를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(이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다), 글자 배열을 달리한다거나 약자 등을 쓰면 타자 속도를 높일 수 있겠구나 하는 것도 전문가라면 곧바로 생각할 수 있다. 글쓴이의 연구 결과는 글자 배열이 아니라, 글자 배열이 어떠한 세벌식 자판이라면 어떤 세벌식 자판을 쓰더라도 속도의 차이는 조금 있겠지만 일반인이 컴퓨터 속기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.

## 6.6 안 마태 신부님의 자판을 처음 보던 날

- 언제인지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, 2000 년도 초반쯤에 어떤 학회 모임에 갔는데 누가 글쓴이에게 컴퓨터를 들고 와 자판을 설명하고 나서, 글쓴이더러 "이런 자판이 가능합니까?"하고 물기에, 그 자리에서 곧바로 "당연히 가능하지요"라고 답변했다.

- 그랬더니 놀라면서 자기가 물어본 많은 사람(대부분 컴퓨터 전문가라는 사람들) 가운데 가능하다고 말한 사람은 내가 처음이고, 더욱이 그것도 별로 생각하지도 않고 듣자마자 대번에 가능하다고 말했다고 하면서 놀라워했다.

- 그래서 글쓴이가 말했다. "선생님의 타자 방식은, 제가 이미 오래 전에(1989 년)에 연구 개발하였고, 1995 년에 논문으로 발표한 개념과 꼭 같은데, 선생님의 자판은 글자 배열만 공 병우 세벌식 자판과 다를 뿐입니다"라고 답변했다.

- 알고 보니 이 분이 바로 안 마태 신부였다. 안 마태 신부는, 글쓴이가 미국에서 유학 하던 시절에 공 병우 박사를 통하여 이름은 많이 들어 잘 알고 있었는데 그 날 그렇게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다.

- 다른 사람들은 안 마태 신부에게 다들 "그런 자판은 안 된다. 절대 불가능하다."라고 답변했다고 하면서, 자기 자판을 인정해 주는 글쓴이를 만나서 너무 반갑다고 하였다. 그 뒤

글쓰이는 안 마태 신부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다. 사람들은 어째서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생각하지는 않고, 자기의 주관적인 경험과 직관만으로 생각하고 말할까? 과학적인 자세가 모자란다.

## 6.7 안 마태 자판의 타자 속도

- 2011.12.월에 한국에 오신 안 마태 신부를 합정동에서 만났다. 그런데 공 병우 390 자판보다 글자 치기 방식으로 (글자마디 치기 방식이 아니라) 안 마태 자판이 1.5 배 속도가 빠르다고 하였다. 글자마디 치기 방식이란 한 번에 글쇠 여러 개를 눌러서 글자마디를 치는 컴퓨터 속기 방식이고, 글자 치기 방식이란 한 번에 글자 하나씩 치는 보통의 타자 방식이다. 그런데 한 번에 한 자씩 치는 타자 방식에서 글자 배열만 달리하여 속도가 1.5 배가 된다는 잘 이해할 수 없었다. 그래서 그렇게 속도가 빠른 이유를 말해달라고 했더니, 그건 아직 분석하지 못 했다고 한다. 다만 실험 결과라고 말했다.

- 딱히 틀렸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도 없지만, 그렇다고 글자 배열만을 바꿈으로써 속도가 1.5 배 올라간다는 말을 선뜻 받아들이기도 어렵다. 글쓰이도 나름대로 자판 전문가인데 수십 년 자판 연구를 했지만, 그런 말은 처음으로 들어본다. 아직은 "잘 모르겠다"가 현재 글쓰이의 잠정적인 결론이다. 언젠가 누가 시연함으로써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보여주든지 아니면 논리적으로 속도가 빨라지는 이유를 분석하여 알려주기를 바랄 뿐이다.

- 참 아쉬운 점이다. 실험에 참여한 꽤 많은 사람들이 속도가 1.5 배 빠르다는 자료를 보았을 텐데, 그 자료를 보고 속도가 어떻게 그렇게 빠르지에 대해 왜 분석을 하지 않았을까? 사실 실험 결과만 보여주면, 실험 과정이나 실험 때의 가정 등을 잘 모르기 때문에, 그 실험 결과를 분석하여 해석을 명쾌하게 내놓아야 다른 전문가들이 받아들여지게 된다. 아쉽게도 그런 분석과 해석은 아직 없다.

- 안 마태 신부는 연세가 많고 따라서 건강도 조심스러운데, 살아계실 때 그런 분석과 해석 결과를 정리하여 내놓으실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잘 될지 모르겠다. 안 마태 신부의 건강을 빈다.



안 마태 자판, [http://daram2.ahndesign.kr/shop/content.php?co\\_id=use](http://daram2.ahndesign.kr/shop/content.php?co_id=use)

